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양 수 진(군산대 석사) · 임 춘 희(군산대 교수)

본 연구는 이제까지 대학생의 혼전동거에 대해 하나의 사회문제로 문제시하는 시각이나 혼전동거에 대해 실태조사 차원의 연구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 특히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에 대해 개인적, 가족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학적인 접근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혼전동거 의식 및 가족기능과 자아분화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가족기능 그리고 자아분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가족기능과 자아분화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 소재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370명을 설문지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하여 기초적인 통계와 t검증과 F검증, 상관분석, 그리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성별, 연애경험, 혼전 성관계 경험 유무, 지인의 혼전동거 여부, 독립기간, 출신고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대학생보다는 남자대학생이 그리고 연애경험이 있고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지인 중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가족과 독립해서 생활하는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남녀공학이나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혼전동거 개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연애경험과 혼전 성관계 유무, 지인의 혼전동거 여부, 가족에서의 독립기간, 출신고교의 형태,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분화 중에서는 인지적·정서적 기능과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남학생인 경우, 연애경험이 있고, 혼전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인 중에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에서 독립한 기간이 길수록, 출신 고등학교가 남학교이거나 남녀공학인 경우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이 높았다. 그리고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과 자아분화의 상관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이 개방적일수록 자아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달리 말해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정서적 기능의 잘 분리되지 못할수록, 자아통합이 잘 되지 않을수록, 그리고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심할수록 동거에 대한 의식상의 개방성이 높았다. 셋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남학생인 경우,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즉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민주적 양육방식을 받은 경우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대학생이 가진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에 있어서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